



할배 가이드 블로그 100번째 글 기념!

통장에 잠든 돈을 깨워라 — 노인 재테크 시리즈 [1편]

✧ 할배 가이드 · 노인 재테크 시리즈 [1편]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손해예요!

노인 우대금리 + 비과세저축 + 예금자보호 1억 — 2026년 총정리

안녕하세요, 할배 가이드입니다! ☺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 블로그의 100번째 글이거든요! 🎉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번째 글 주제로 — 노인 재테크 시리즈를 시작해요. 이보다 더 영양가 있는 주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되지 뭐.'

그러면 손해예요! 같은 돈인데 —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이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노인이 꼭 알아야 할 예금·저축의 핵심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먼저!

- ✓ 2026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3% 초중반대
- ✓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0.5~1%p 더 높아요. 안전도 같아요!
-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이자 세금 15.4% 전액 면제!
- ✓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 1억 원으로 올랐어요!
- ✓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 → 3,000만 원까지 세금 1.4%만 내요!

◆ 노인 재테크 3대 원칙!

첫째, 잃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주식·코인은 두 배 벌 수 있지만 두 배 잃을 수도 있어요.

노인에게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이에요.

둘째, 세금을 줄이는 게 수익이에요!

이자 15.4% 세금을 면제받으면 — 금리가 0.5% 오른 것과 같은 효과예요.

셋째, 분산해서 넣으세요!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넣으세요.
예금자보호 한도(1억 원)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핵심 1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세금 0원!)

이게 노인에게 가장 강력한 혜택이에요!

일반 예금 이자에는 세금 15.4%가 붙어요.
1,000만 원을 연 3.5% 금리로 넣으면 → 이자 35만 원 → 세금 5만 3,900원 → 실수령 29만 6,100원.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이 0원이에요!
똑같은 조건이면 → 이자 35만 원 전액 그대로 받아요!

구분	1,000만 원 × 연 3.5% × 1년
일반 예금 (세금 15.4%)	세후 이자 약 29만 6,100원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0%)	세후 이자 35만 원 (전액!)
차이	약 5만 3,900원 더 받아요!

5,000만 원이면 1년에 약 27만 원 차이예요. 10년이면 270만 원이에요!

가입 조건이에요.

- 첫째,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2026년 기준)
- 둘째,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한도
- 셋째,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가능

신청 방법이에요.
가까운 은행·저축은행·우체국·농협·신협 방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 신분증 지참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러 왔어요' 한 마디!

⚠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 가능해요!
일반 65세 이상은 신규 가입이 안 돼요.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핵심 2 — 예금자보호 1억 원 (2025년 9월 변경!)

2025년 9월 1일부터 —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망해도 나라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제 한 금융기관에 1억 원(원금+이자 합산)까지 안전해요.

금융기관 종류	보호 한도	보호 기관
은행 (시중·지방·인터넷)	1인당 1억 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1인당 1억 원	예금보험공사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1인당 1억 원	각 중앙회
우체국	전액 보호	정부 직접 보장

⚠ 주의! 한 금융기관 안에서 원금+이자 합계가 1억 원이에요.
이자 포함해서 1억 원이 넘으면 — 초과분은 보호 안 돼요!
1억 원이 넘는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 나눠서 넣으세요.

◆ 핵심 3 — 어디에 넣는 게 유리한가요?

2026년 7월 기준 금리 현황이에요.

금융기관	1년 정기예금 금리	세금 혜택	특징
시중은행	연 3.0~3.5%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가장 안전·편리
저축은행	연 3.5~4.5%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금리 높음, 1억 보호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	연 3.0~4.0%	3,000만 원 세금 1.4%	세금 혜택 강점
우체국	연 2.8~3.3%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액 정부 보호

할배 추천 전략이에요! ☺

- ✓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 먼저 채우세요!
- ✓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요. 안전도 같아요!
- ✓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 가입하면 → 세금 혜택 추가!
- ✓ 1억 원 넘으면 →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넣으세요.
- ✓ 금리 비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 (finlife.fss.or.kr)

◆ 2026년 예금 금리, 이렇게 더 받으세요!

우대금리 챙기는 법이에요.

- 첫째, 첫 거래 우대금리 — 해당 은행에 처음 거래하면 +0.1~0.3%p 더 줘요.
- 둘째, 자동이체 등록 — 월급·연금 자동이체 등록하면 +0.2~0.5%p 추가.
- 셋째, 인터넷·모바일 가입 — 영업점 방문보다 온라인이 금리 높은 경우 많아요.
- 넷째, 만기 자동 재예치 — 만기 때 자동 갱신 설정하면 +0.1~0.2%p 추가.

⚠ 광고에 나오는 '최고 연 6~8%'는 조건을 다 채웠을 때 숫자예요!
실제 내가 받을 금리 = 기본금리 + 내가 충족 가능한 우대조건
가입 전 우대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저축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줘요. 1억 원 이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Q. 예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의 30~70%로 이자가 뚝 떨어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 생활비 3~6개월치는 따로 두고 나머지를 예금하세요.

Q. 비과세종합저축을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농협·신협 어디서나 가입 가능해요. 단,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예요. 여러 곳에 나눠서 가입해도 돼요.

◆ 할배 한마디

100번째 글을 재테크 시리즈로 시작하게 돼서 기뻐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 있는 돈을 잘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노인 재테크의 핵심이에요.
오늘 당장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안 하셨다면 — 이번 주 안에 은행에 가보세요! 😊

✓ 기초연금 수급자 →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 이자 세금 0원!

- ✓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 높아요. 1억 원까지 안전해요!
- ✓ 금리 비교: finlife.fss.or.kr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 ✓ 1억 원 넘으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 ✓ 2편에서는 '국채·채권으로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

※ 2026년 7월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할배 가이드였습니다. 😊

이미지 제작 프롬프트 (AI 이미지 생성용)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한국 70대 할아버지가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환하게 웃으며 예금 통장을 펼쳐 보고 있는 장면. 탁자 위에 '비과세 통장'이라고 적힌 서류가 보임. 배경에 은행 내부의 밝고 깔끔한 분위기. 초록·금색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색감, 일러스트 스타일."

#노인재테크 #비과세종합저축 #예금자보호1억 #저축은행금리 #노인우대금리 #통장에잠든돈 #재테크시리즈 #할배가이드 #건강하게삽시다 #72세할배 #안전한투자 #이자세금면제 #예금금리2026 #노후재테크